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추진

익산시,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전북개발공사와 실무협의회 구성

익산시가 미래전략 프로젝트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전북개발공사의 노하우를 접촉시켜 성공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최근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사업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북개발공사와 지난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해 준비부터 착공까지 시

행차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관련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성과평가를 기초로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의뢰서를 제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이달 타당성 검토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타당성 검토 기간은 약 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성 검토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공공가치 부분의 적정성도 함께 분석하며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행안부의 투자심사까지 완료되면 사업 시행 방식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의 남부권 수변과 인접해 있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새만금 배후 도시의 연결축을 담당할 차별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주와 김제, 군산 등 인접 도시의 중심생활권으로 개발되면 인구 유입 효과를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그루터기청소년 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프로그램·동아리 특화 운영

익산시, 그루터기청소년도서관 최우수상·동산작은도서관 우수상

익산시 그루터기청소년 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시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평가는 도내 작은도서관 372개소(공립 147, 사립 225)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그루터기청소년 작은도서관이 최우수상, 동산작은도서관이 우수상을 수상해 각 작은도서관에 도지사 표창 및 우수도서관 인증 현판과 더불어 인센티브 사립비 300만원, 200만원의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는 도서관 경영, 지역 협력 및 홍보, 인적자원, 장서 및 운영환경 등 영역별 총28개 평가지표의 종합적인 운영평가로 이루어졌다.

1차평가는 시군별 자체심사 후 선정된 도내 작은도서관 62개소(공립40, 사립22)를 대상으로 2차 평가는 전라북도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를 통해 최우수개소(공립1, 사립1), 우수개소(공립2, 사립1), 장려개소(공립3, 사립1) 총9개소의 우수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루터기청소년 작은도서관은 청소년을 위한 북카페형 시설로 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특화하여 운영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민들의 한해 시를 응모받아 '푸른 숲에 들다' 시집 발간, 시화 전시, 시 낭독의 밤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학 행사를 보여줬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 영등동, '상권 르네상스사업' 최종 선정 쾌거

815개 점포 대상 5년간 100억원 지원... 중심상권 재도약 발판 마련

호남지역의 중심상권인 영등동 일대가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익산의 중심 영등동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옛 명성을 되찾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5차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특화된 콘텐츠를 토대로 디지털 상권을 구현하고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익산시의 강한 의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익산시는 영등 2동 815개 점포, 13만18천206㎡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 상인과 구역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상생하여 코로나19와 비대면 쇼핑 활성화 등으로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도비 10억, 시비 40억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익산 새로운 상권르네상스 사업 세부 계획을 고도화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소용·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상권 구현이라는 가치로 백제문화와 역사, 영등동 상가와 백제단길 상인들이 함께 하는 스마트 상점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등2동 일원에 스마트상권 안내 시스템 구축, 비대면 쇼핑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상생 거리 조성, ▲대규모 점포와 협업을 통한 새로운 상생거리 구축, ▲마룡 청소년 거리 조성을 통한 백제문화체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거리 거리 조성, ▲백제단길의 고도화 사업을 통한 음식문화 특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영등동 지역 상인과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포함된 상권 르네상스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권 활성화 추진단(단장 강호현)을 발족하여 쇠퇴하고 있는 영등 상가와 백제단길을 대상으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준비해왔다.

상인회와 협력해 사업 구역 내 815개 점포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 동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철저한 준비로 평가를 받았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 위생단체장 '참여방역' 실천 결의대회

군산시는 위생관련 단체장 긴급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특별방역 거리두기 조성 방안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시설, 목욕탕 이·미용업, 숙박업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특별방역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 및 이행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영업주 스스로 노력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백신 완료자 확인 등 불법 영업을 근절 될 수 있도록 영업주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용수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장은 결의문을 낭독을 통해 위생단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 현장에서 '참여방역' 실천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정헌을 익산시장, 3차 접종 적극 동참 독려

정헌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며 지난 10월 3차 백신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10일 접종 참여에 선도적으로 앞장 서며 3차 접종을 받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3차 접종일이 도래한 시민들께서도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또한 시 산하기관 모든 직원들에게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하여 시행한다.

일괄 변경된 3차 접종 간격에 따라 추가접종 간격이 도래한 대상자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실시되고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추가접종이 가능한 날 2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

약 누리집(ncvr.kdca.go.kr)과 SNS, 카카오톡·네이버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익산시보건소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접종 편의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접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추가 접종을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12월을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국장은 주 1회, 과장은 주 2회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 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기자

제7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창훈' 후보 당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7대 위원장에 한창훈(55) 후보, 사무국장직에 문상훈(44) 후보가 당선됐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실시된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7대 임원 선거에서 제7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한창훈 후보가 투표 조합원 50.47%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분청, 임시청사, 북부청사 3곳에서 12월 10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치러졌으며, 투표자 수 1천27명 중 799명이 투표하여 71.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창훈 후보는 사무국장직으로 동반 출마한 문상훈 후보와 함께 373표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한창훈 당선자는 1991년 공직에 입문한 후 위생환경사업소 상수도과 등 익산시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익산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역대 노동조합 사무국장, 지도위원 등을 거치며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익산=이득훈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